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음 깨기

Q.Q (Quaker Question)

교회행사

기독교 종파 중에서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지향하는 퀘이커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계가 멈춘 것처럼 21세기를 살면서도 17세기의 생활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차를 타고, 화려한 옷 대신 검정색 옷만 입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씁니다. 모임의 독특성 때문인지 이들은 새로운 신자를 받아들일 때도 무척 신중을 기합니다. 새로운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소개할 “퀘이커 퀘스천”이라는 질문이 탄생했습니다.

퀘이커 퀘스천은 한 사람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네가지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질문을 소개합니다.

1.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5월

- 5일 어린이주일
“히즈쇼 뮤지컬”
- 12일 아버지주일
“김성중 교수 초청 장년 일일 말씀사경회”

6월

- 8-9일 더함 공동체 수련회
- 9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 28-30일 더원 공동체 수련회

경배 찬양

오늘 이 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단히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빛으소서

선교

[이화남 선교사]

남이공

- 이곳의 주민들이 조용히 스며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우물을 허락하시어 목마른 주민들에게 영과 육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길
- 코로나로 흩어진 교인들이 돌아오게 하시어 더욱 부흥케 하시기를
- 사역에 필요한 차량 구입 비용을 채워주시기를

교회 소식

한문장 큰 울림

-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남전도회 체육대회** 남전도회 체육대회(배구, 족구)를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일시 : 6월 22일(토) 08:40~13:00, 종료 후 점심 식사, 장소 : 신흥중학교 / 신흥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문의 : 유신 집사 (010-7400-9996)
- 골프선교회 모집** 더온누리 골프선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월 한차례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후원금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 선교동아리입니다. 문의 : 이호영 집사 (010-8543-6936)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이 가능하다.
성령은 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 터틀리안 -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11:25-26)

1. 안디옥에 전파된 예수(19~21절).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복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전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20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저주 받아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이방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는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살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경계를 뛰어 넘은 것이지요. 이들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족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 마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인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안디옥교회의 신앙의 모습과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나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관을 뛰어 넘는 일을 해본적이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땠나요?

2.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 파송(22-26절)

안디옥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복음이 전파 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시 한번 바나바를 통하여 큰 무리가 안디옥교회에 더하여 졌다고 증언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도착하여 그들을 바라보며 “잘하고 있다. 은혜와 기쁨이 당신들 가운데 있다”(23절)라고 말합니다. 당시는 교회가 이제 막 생겨가기 시작 하는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준은 예루살렘교회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로서 유대인의 기준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교회를 기준으로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 차이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안디옥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을 수용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나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이 수 없다 라고 생각 되는 것과 나는 이 정도 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다 라는 것을 나누어 보세요

바나바의 성품과 리더십을 통하여 안디옥교회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눈 여겨 보았던 사울을 안디옥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의 결과로 안디옥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까지 그들의 삶은 온통 예수님이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예수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에 따라, 하나님을 각각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누구도 그들의 출신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출신과 배경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일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안디옥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 불리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 나의 삶에 큰 의미가 있는 말씀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 받은 부분과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나눔 주일 말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이방인들의 교회 / 사도행전 11:19-30]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나눔	비른 경외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비른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며,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소서.
	비른 예배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